

9월 첫째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 여전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10주 연속 증가
-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속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필요

○ '25년 36주차(8.31.~9.6.) 코로나19 발생 동향

- (입원환자 표본감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 433명, 10주 연속 증가
* (최근 4주) 33주 302명 → 34주 367명 → 35주 406명 → 36주 433명
- (병원체 표본감시) 의원급 호흡기 환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39.0%로 증가세 지속*, 하수 감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
* (최근 4주) 33주 31.5% → 34주 32.6% → 35주 37.7% → 36주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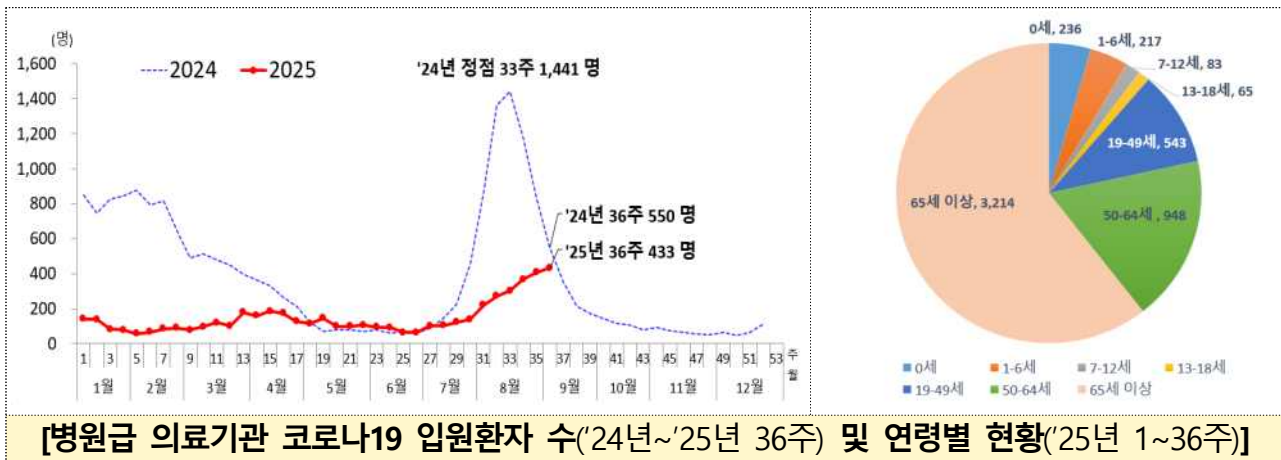
-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예방수칙 생활화
- 어르신 등 고위험군,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및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필요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아프면 집에서 쉬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첫째 주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5년 36주차(8.31.~9.6.)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26주차(6.22.~ 6.28.) 이후 10주 연속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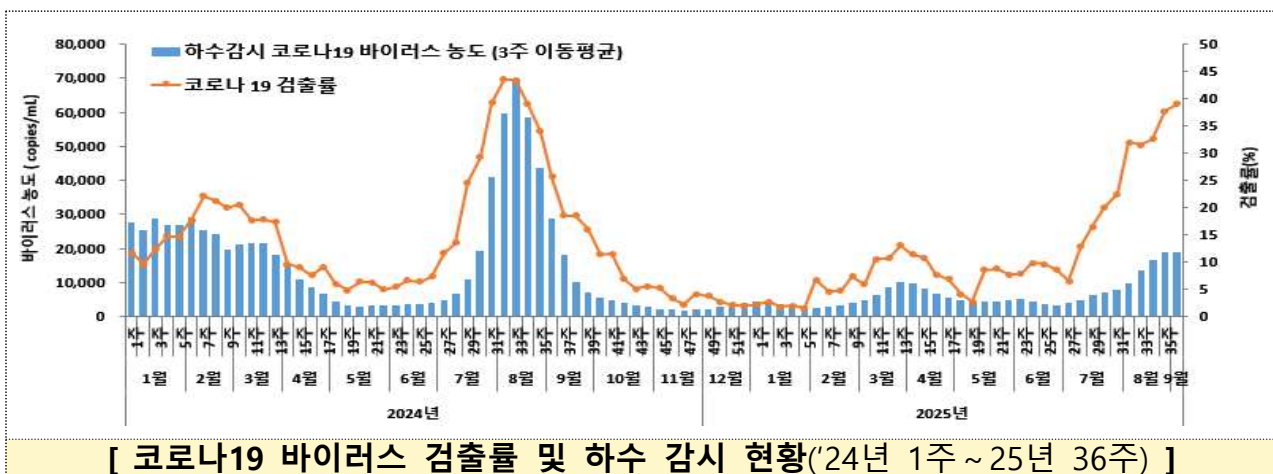
* (입원환자 수) 26주 63명 → 27주 101명 → 28주 103명 → 29주 123명 → 30주 139명 → 31주 220명 → 32주 272명 → 33주 302명 → 34주 367명 → 35주 406명 → 36주(8.31.~9.6.) 433명

'25년 누적(36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5,306명)의 60.6%(3,2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9%(948명), 19~49세가 10.2%(543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5년 36주차(8.31.~9.6.)에 39.0%(+ 1.3%p)로 3주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36주차에 소폭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29주 16.5% → 30주 20.1% → 31주 22.5% → 32주 32.0% → 33주 31.5% → 34주 32.6% → 35주 37.7% → 36주(8.31.~9.6.) 39.0%



질병관리청은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증가폭은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9월까지의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9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국민께서는 환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 하여 기억하고, 꼭 실천해달라”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해 주시고, 참여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의 가족은 인후통,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증상 호전될 때까지 쉴 수 있도록 회사나 단체 등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은 환절기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 때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주요 내용 ▶

<일상생활에서>

- 손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됨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 조성 권고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행사 참여 자제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

<감염취약시설에서는>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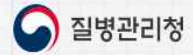
-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 주기적인 실내 환기(예: 2시간마다 10분씩)
- 코로나19 진단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쉴 수 있게 배려

- <붙임> 1.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포스터
2.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포스터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7140)
		담당자	팀 장	김동근	(043-719-7150)
		담당자	연구관	송정숙	(043-719-7141)
		담당자	연구사	최혜리	(043-719-7198)
담당 부서 <협조>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은진	(043-719-8140)
		담당자	연구관	이지은	(043-719-8220)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백선경	(043-719-7730)
		담당자	역학조사관	류보영	(043-719-7745)



2024.8.19.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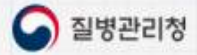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2024.8.19.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은 지켜주세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 1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2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받기

감염취약시설*은 지켜주세요!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 1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2 보호자나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기
- 3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4 코로나19 확진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실 수 있도록 배려하기

